



가을 야구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메이저리그 경력상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김하성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하성은 21일(한국시간)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97.3 더 팬'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첫 날보다 훨씬 나아졌고,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하성은 이틀 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회초 공격 도중 1루로 복귀하던 중 오른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당시 그는 왼팔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야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장기 결장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검사 결과는 염증이었습니다. 그는 수요일에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가장 먼저 오른 김하성은 "기쁘지는 않지만 트레이너, 코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안전놀이터 추천](#)

"제 목표는 5일 안에 나아서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하며 처음에는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 중에 우리 팀은 포스트시즌에 갈 것이고, 월드시리즈에 가야 하는데, 더 나은 컨디션으로 경기하기 위해 부상자 명단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거기로 갔습니다."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이크 실트 감독은 김하성의 부상자 명단 이동에 대해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것은 분명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